ECHO #08

Engaging Communu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CHO

vol.8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이승민 Lee seung min 조은진 Jo eun jin

부편집위원장

Editor – 윤유미 Yun yu mi
Design – 권재승 Kwon jae se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나예진 Na ye jin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우혜정 Woo hye jung

VOL8 CONTENTS :

E

05 미컴만의 특별한 2학기

4학년이 알려주는 2학기 미컴의 특별한 행사

07 커뮤니케이션.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배운 모든 것

10 자승최강

국토대장정 일대기

C

14 뜨거운 청춘들의 6개월

KOSAC, Youth팀의 이야기

18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 근무이야기

20 무더운 여름, 당신의 더위를 식혀줄 노래

21 추억의 음원 스트리밍, LP판과 카세트테이프

H

23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한국정책방송원 KTV 라디오팀 신입작가 인터뷰

25 17학번들의 요령 없는 알바기

땀흘린 아르바이트 이야기

O

29 여름 안의 우리

여름에 읽는 책 추천

32 대프리카 더위 피하지 말고 즐겨라

대구 힙플레이스 5선

36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여름 그 맛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맛

Engaging

느이 과엔 이런 행사 없지?

4학년이 알려주는 2학기 미컴의 특별한 행사들

봄과 함께 찾아온 3월 개강과 함께 집단지성 힐링캠프, MT, 체육대회, 축제를 소화했다. 그리고 좀 쉬려고 하니 여름과 함께 찾아온 각종 시험과 과제들…. 종강하고 나서도 치열하게 일러스트와 포토샵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여유 없이 이리저리 치여 산 것 같은 건 함정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알고 여유롭게 참여하면 더 재밌는 미컴의 2학기 특별한 행사들!

행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번 여름 방학에 열렸던 일러스트와 포토샵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특강이 어땠는지 물어봤다.

김일러 : 생각보다 너무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해 초반에는 흥미가 떨어졌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포토샵 이외에 일러스트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다. 게다가 두 프로그램 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이다. 프로그램의 툴보다 실제 많이 사용하는 효과들 위주로 배울 수 있다면 한 번 더 수강하고 싶다.

김포샵 :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어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한 강의라 생각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용어와 방법 등을 쉬운 언어와 표현법으로 풀어 강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강의실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나에겐 일러스트와 포토샵은 막막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처럼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참여하면 최소한 잃는 것은 없다는 점!
그럼 본격적으로 2학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행사들을 소개해보겠다.

1. 부산국제광고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렇듯, 광고인이라면 매년 하반기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광고제 참여를 빼놓을 수 없다. 내로라하는 국내·외 광고인들이 모인 축제다. 광고제에서 출품한 광고들을 볼 수도 있고, 셀럽들의 세미나도 들을 수 있다. 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위한 체험존도 크게 있으니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광고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 집단지성 현장캠프

1학기에서 학점 챙기랴, 취업 뽀개랴 번아웃(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된 대학생들을 위해 나를 찾고 돌보는 힐링캠프를 갔다면, 2학기 때는 내가 취업할 직종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직접 컨택 해서 만나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보는 집단지성 현장캠프가 준비되어 있다! 박대기 기자, 에스콰이어 편집장, 한창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웠던 작년 11월에는 JTBC 정책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취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행사다.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술제

1년을 정리하는 송년회처럼, 학과에도 1년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바로 학술제다. 랩실, MC+등 학과의 모든 모임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곧 헌내기로 변하는 1학년들의 귀여운 연극도 볼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시상식과 경품 추첨식도 있으니 참여하지 않으면 후회할 각!

앞서 소개한 주요 행사들과 다른 작은 행사들이 2학기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1학기를 알차게 보낸 것처럼 1년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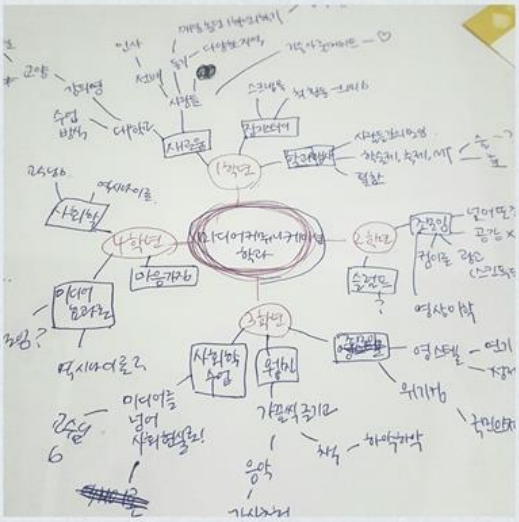
글 나예진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새벽이다. 익숙한 시간인 만큼 지금의 나는 익숙하게 하루를 되돌아보지만, 역시나 생각의 회로는 뒤엉켜 한 달 전으로, 마침내 더 멀어져 작년까지 이어진다. 지금의 나라면 그 때처럼 시간을 보내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시간을 되새기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후회들이 몸서리치게 만드는 밤이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던 것도 잠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로 '긍정'이라 여기는 만큼 요즘 나는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면 이를 전환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파 낙천성'은 나와 친구들이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 열심히 실천하려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와도 같다. 어제가 없는 내일은 결국 없으니까. 오늘의 후회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서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희망을 가져본다. 분명한 점은 진짜 스무 살의 나보다 스물 셋의 나는 훨씬 더 성장했다, 는 것이라고.

내겐
늘 *불친절했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예찬

이론 너머 시험, 시험 넘어 과제, 과제 너머 조모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19와 20, 미성년과 성인의 간극이 얼마나 큰 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제재 당했던 것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고, 학창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도 각기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이 괜히 더 소중해지고, 전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선택한 전공의 수업을 듣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학교에 들어오고 한동안은 오히려 그 어색함이 기대로 다가오던 날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에 오면서 가장 몸으로 와닿던 변화는 생활환경도, 사람도 아닌 '수업'에 관한 것이었다. 많이 널널해진 시간표를 보며 하늘이 까맣게 변해야만 겨우 집에 왔던 고등학생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맞나 싶었고, 여태 해왔던 것들과 달리 '배우는 사람'의 몫이 절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다. 1학년 1학기부터 나는 하나의 종이신문을 만들기 위해 동기들과 '조모임'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고, 책을 미리 읽어서 토론할 거리들을 준비해야 했으며,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스크린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발표를 해보았다. 사실 안타깝게도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1학년의 나는 대학(大學)에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점은 고등학생 때 배우던 절대적인 틀에 박힌 수업들보다는 훨씬 재미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선배, 동기들과 처음으로 시작했던 스터디는 생산적인 시간이 주는 밝은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하고자 하는 바는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내게 선배와 동기들이 건네준 응원과도 같았다.
아, 물론 당시 내 글은 지금 보면 낯 뜨거워질 정도로 순 엉터리이지만, 나는 또 다시 곱씹어본다. 결국 오늘도 먼 훗날에는 과거가 될 것이며, 어제가 없는 오늘과 내일은 없다는 것을.

특히나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으로 두고 배우는 까닭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줄줄이 늘어지는 말꼬리처럼 '신방'하면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것이 조모임이었다. 사실 내게 조모임이란 오전 수업과 맞바꾼 소중한 공강이 우스워질 정도로 매일 학교를 가게 만드는 미운 것이었고, 협동과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대개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존재와 같았다. 대부분의 조모임이 그리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지만 나는 순종적이었고, 사실 순종적이기만 해서 조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잘 따라가지 못했던 탓도 있고, 무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내 의견을 내는 것이 그 분위기만큼이나 무거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일이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듯 조원이나 교수님이 해주는 따뜻한 말에 힘을 냈던 적도 있었고, 학년이 올라가며 했던 다양한 과제는 뜻하지 않게 재미있는 경험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은 여전히 늘 후회로 남아있다.

이처럼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피하고 싶던 조모임도,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고치도록 깨닫게 해주는 이 과정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였던 것이다.

유명인들은 하나같이 '소통'을 강조한다. 이것뿐이랴,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리더십, 소통 전문가, 소통 치유처럼 그럴싸한 단어 옆에는 늘 소통이 붙는다. 포털사이트에 책 검색을 해봐도 제목에 '소통의 기술'이 들어가는 책만 대 열여섯 권이 나온다. 소통능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버린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소통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내게 질문을 던져본다.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왔던 3년하고 반의 시간은, 어땠는가.

사실 제목에는 '예찬'이라고 붙여놨지만, 실은 '애증'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복잡한 것 같아서 보기 싫고, 공부할 땐 볼 게 많아서 하기 싫고, 더 이상 미뤄놓을 곳이 없을 때 겨우 찾아보게 되다가도, 재미를 느끼거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심정이랄까. 집안을 온통 어지르고 맛있는 것들을 다 뺏어먹는 조카가 밉다가도, 또 막상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배부르고 괜히 뿌듯한 그런 거. 매 시험기간 빼곡히 쌓이는 프린트를 보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공부가 간혹 재밌거나, 잘 되거나, 열심히 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하면 온종일 들뜰 정도로 또 다른 기쁨이나 성취감을 얻기도 했다.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나 나는 어느덧 가장 높은 학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실제로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무지와 짧은 생각으로 침묵했던 경험도 있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고민하면 여전히 깊이 아래로 내려가는 기분이니까.

하지만 '신문방송',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느끼고, 얻고, 깨달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딱딱한 이론만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나 자신에게 접목시키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를 하고 기사를 써봤던 기억은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또 가끔은 경계를 넘어 타과의 강의를 들으며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도 노력했고, 이러한 배움은 수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법을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비슷한 꿈을 가져온 내가, 또 다른 전공을 배워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커뮤니케이션 말고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더라도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 완벽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실제로 나는 늘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3년의 시간동안 알 수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미숙함으로 인한 열등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역으로 이러한 열등감은 나를 한 뼘 더 성숙하게 해주는 촉매제와 같았던 것이라고 나는 늘 생각한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커뮤니케이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앞으로 자동문을 드나들 기간들이 지금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에게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이러한 애증의 존재가 나를 끝까지 감싸주어서 내 궁극적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자능최강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다

23살 여름, 나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 수험생 시절 버킷리스트에 적어나갔던 국토대장정이 떠올랐다. 우연히 주변에 국토대장정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자신이 다녀온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대장정'을 추천했다. 당시 모집 포스터에 적혀있던 '도전하지 않는 젊음은 낭비일 뿐이다'라는 슬로건은 나의 가슴 속에 와 닿았다. 또한, 일반인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DMZ 지역을 걷는다는 건 정말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1차 합격이라는 행운과 함께 체력테스트, 면접, 최종 합격까지 쾌거를 이뤘다.

일정 1일 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날 나는 평화팀 팀장이 되었다. 물품을 지급받고, 태극기를 달고, 대장정의 구호를 연습하고, 텐트 치는 법을 익히며 15박 16일을 준비해나갔다.

첫날 아침, 행군 정복을 입고 발대식을 위해 광화문으로 향했다. 우리의 도전을 응원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출발하기 전 엄홍길 대장님을 비롯해 재단 사람들이 행운을 축원하는 흰 스카프인 카타를 목에 걸어주며 안아주시는데, 대장정의 시작을 그때부터 실감했다. 그렇게 발대식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다. 평화통일 전망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몸풀기로 5km를 걸었다. 생각보다 금방 도착해 완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진행요원분들이 선창하는 "악!", "꽥!", "킹콩"과 같은 구호들을 따라 외치며 걸었다. 구령에 맞춰 걸으니 얼마나 힘이 나던지.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쉴 것 같았다.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흐르면서 발바닥 전체에 물집이 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다. 다행히 엄 대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신, 바람신, 구름신이 도와주셔서 조금은 편하게 걸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코스인 진부령에서 날씨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가파른 언덕길을 걸으려니 죽을 것 같았다. 모두가 힘들지만, 팀원들 다 같이 완주하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며 올라갔다. 진부령에 도착한 뒤 엄홍길 대장님은 우리에게 '자승최강'이라는 말을 알려주셨다. 자승최강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진부령을 넘은 우리 대원들 모두 너무 대견스럽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다.

대장정 기간 동안 대원들끼리 간접군대체험이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군 특수부대인 UDT 출신인 진행요원들과 군부대 내 숙영지, 오와 열, 인원보고, 불침번, 군가까지…. 여자인 나에겐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해나갔다. 심지어 나중엔 노래를 시키면 자진해서 군가를 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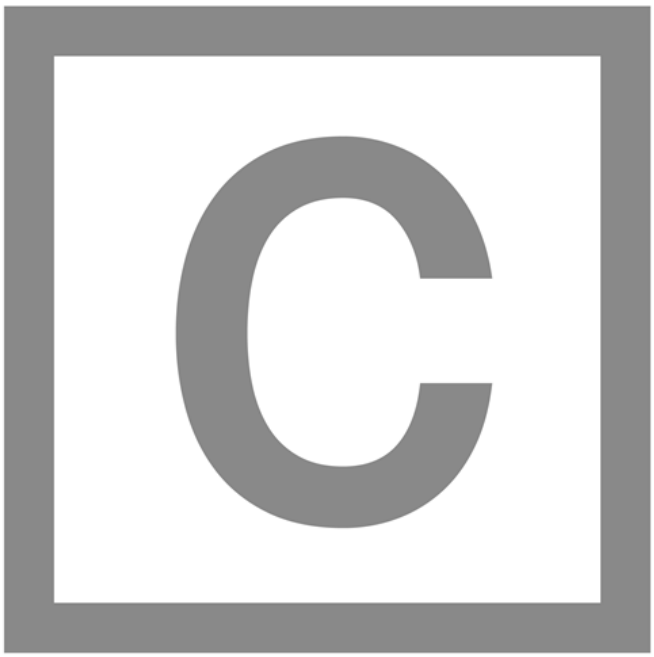
그렇게 울고 웃으며 걷다 보니 일정의 중반 지점인 화천 평화의 댐에 도착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함께 동고동락해온 나의 동지들이 나를 향해 웃으며 "팀장 수고했다"고 토닥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평화의 댐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팀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 미니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3개월 후의 나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영상편지를 보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후반부를 준비했다.

평화통일 콘서트 다음날은 가장 긴 코스인 35km를 걷는 날이었다. 걸어야 할 거리가 멀다 보니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출발했다. 대원들은 힘들만도 한데, 하루 쉬어서 그런지 노래와 구호를 더욱 힘차게 외치며 걸었다. 숙영지로 돌아와 저녁프로그램으로 레슬링영웅 故 김원기 대표님이 강연을 해주셨다. 김원기 대표님뿐만 아니라 엄홍길 대장님, 하나은행 회장님, 전 국방부 장관님 등 많으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새 완주식 전날이 되었다. 하룻밤만 자면 완주라는 게, 오늘 밤이 텐트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니 불침번 섰던 날, 비 맞으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른 날, 아스팔트 위에서 치킨 먹은 날, 계곡에서 논 날, 물집을 자른 날 등 많은 추억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완주식 날, 걸을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끝이 다가오니 아쉬웠다. 마지막 4km. 누구보다도 크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저 멀리 임진각이 보이고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렸다. 대장정 기간 동안 유독 힘들어했던 우리 팀 막내가 엉엉 우는데 괜히 나까지 눈물이 났다. 다들 도착해 서로 고생했다며 토닥이는데 정말 가슴 뜨거웠다.

대장정을 끝낸 지금, 2017년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5기 DMZ 평화통일대장정 대원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값진 경험들을 선물해주신 엄홍길 대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이 감사한 마음을 꼭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사회인이 되어 다시 찾아뵙고 싶다.



Communicating

KOSAC Youth Team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뜨거운 **청춘**들의 6개월"

이승민 · 조은진 · 주예진 · 천효진 · 황석태

As you like it!

"모든 순간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이며, 모든 상황이 배움의 시간이다."

매일 매일 내 삶이 광고가 되었던 시간. 그 6개월간 다섯 명의 청춘이 그려낸 하나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3월 조금은 쌀쌀하던 어느 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광고 공모전에 뛰어들었다. 2017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 창작 경연 KOSAC이었다. 14학번 동기였던 승민이, 예진이 휴학하고 돌아온 효진이, 그리고 우리의 청일점인 석태 선배까지 운 좋게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 우리는 'YOUTH'팀이 되었다.

처음 코삭을 준비 할 때

[예진]

'광고를 광고하라'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웠다. 광고를 광고하라니 막연하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IMC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아이템을 생각해내는 데만 2달을 보냈다. 매일 광고에 대한 논문도 읽고, 기사도 찾아가면서 아이템을 생각해봤지만 '진짜 이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없었기에 팀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수님께도 많이 찾아갔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지역 예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매일 수업이 끝나는 5시 이후부터 밤새 회의했다. 지역 예선을 위해 한 달간 석태 선배가 팀원들의 집까지 차를 태워다 주는 것도 일상이었다. 학교에서는 미친 듯이 아이템을 다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서로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난다.

[석태]

접수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의를 했고 집에 가장 늦게 도착했을 때가 새벽 5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시간 자고 다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생활이 이어졌었는데, 사실 공모전을 진행한 3개월간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오직 공모전 생각뿐이었다.

예선 당일

[석태]

발표 당일 발표 장소로 운전을 해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내가 긴장한 탓에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온전히 힘을 주지 못한 탓이었다. 처음 일어난 교통사고라 다리에 힘이 풀렸고, 급하게 번호를 교환하고 예선 PT 장에 도착했다. 예선 부모님과 팀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면 PT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아침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잊으려 끊임없이 발표 대본을 읽고 본선으로 진출하는 긍정적인 상상을 했다.

[예진]

YOUTH팀의 발표는 3부 중 2부 중간 순서였다. 발표 전 4팀의 발표를 먼저 접했는데 정말 참신하고 발표도 잘하는 것이다. 정말 눈에 띄는 팀도 있었고, 저 팀 정도는 우리가 가뿐히 이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팀도 있었다. 그렇게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바로 앞 팀이 같은 주제에 비슷한 아이템, 참신한 아이템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발표를 보면서 '헐...'이라는 말만 했던 것 같다. 긴장의 절정을 달리며 우리 팀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수님과 학과 선후배, 동기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그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다.

[승민]

학과 특성상 PT발표는 낯설지 않았다. 리허설을 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 팀의 순서였고 발표자인 나와 석태 선배는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며 무대에 올랐다. 첫 슬라이드의 대사를 잊어버린 석태선배는 두 문장을 놓쳤고, 나도 대사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애드리브로 넘어갔다.

15분의 시간. 우리 팀의 컨셉인 "광고를 즐겨라!"를 토대로 즐기는 모습을 심사위원분들께 표현하고 내려왔다. 사실 발표 도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과에서 응원 나온 동기, 선배, 후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웃으면서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은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는 마음뿐이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는 말만 계속 되새겼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긴장했었다. 그렇게 두 손을 꼭 쥐고 시상식을 기다렸다. 장려상, 동상 마지막 팀을 발표할 때까지 팀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석태]

은상으로 우리 팀이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26년 인생 중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때의 짜릿함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며,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렸다. 냉정한 표정으로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 우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시더라.

얼마 남지 않은 본선

[예진]

우리 팀의 장점은 서로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과 질문을 반복하면서 기획을 더욱 탄탄히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 시간을 즐기면서 준비하고 있다. 지역 예선에서 선보인 아이템들을 직접 실행해보고, 다른 아이템도 추가해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팀은 즐기면서 이 공모전을 이어나갈 것이라 예상한다. 말뿐이 아닌 후회 없는 발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꼭.

[효진]

사실 지금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선을 준비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조금은 막막한 느낌도 있는 듯 하다. 걱정도 있지만,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확실히 예선을 준비할 때 보다 더 느낌이 좋기 때문이다. 본선에 서있을 우리 팀을 생각하면 마냥 벅차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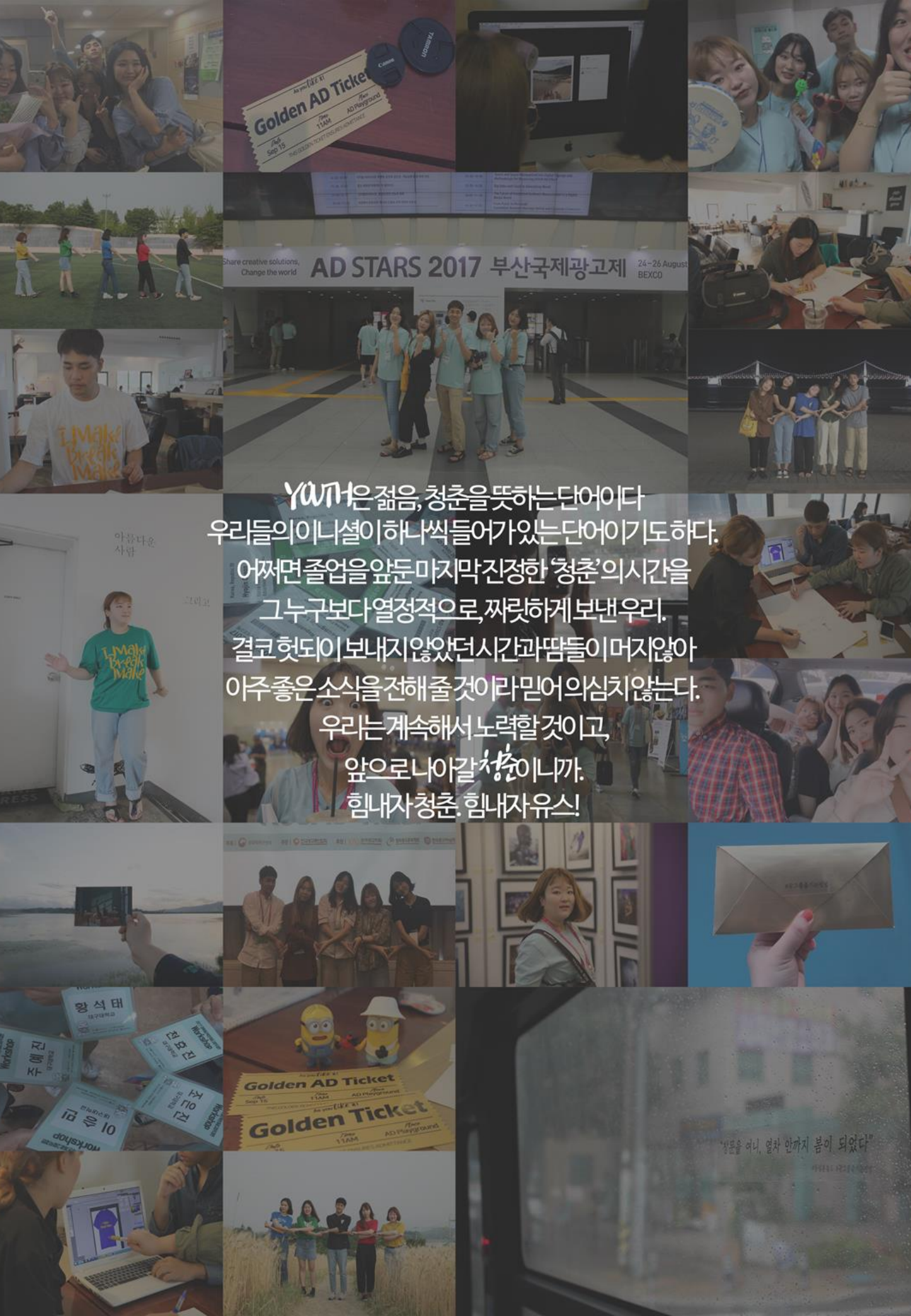
[석태]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는 장관 상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는 공모전이라기보다는 광고산업의 확산을 위한 IMC라는 게 내 인생이 된 것 같다 버스를 타더라도, 샤워를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시내를 걷더라도 모든 감각을 열고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모든 순간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이며, 모든 상황이 배움의 시간이다. 대학교를 다닌 4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승민]

대학교 생활 중 가장 짜릿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열정적으로 공들여서 승리를 맛본 경험이었다. 우리는 9월 15일, 6개월 동안의 종지부를 찍는 전국최종대회에 참가한다. 대회를 마치고도 우리의 광고에 대한 열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 즐길 수 있는 힘! 우리는 이 힘을 믿어본다.

쌀쌀한 봄부터 무더운 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까지 함께 해온 석태 선배, 은진이, 예진이, 효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Youth 팀 파이팅!



YOUTH은 젊음, 청춘을 뜻하는 단어이다
우리들의 이니셜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어쩌면 졸업을 앞둔 마지막 진정한 '청춘'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짜릿하게 보낸 우리.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시간과 땀들이 머지않아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청춘이니까.
힘내자 청춘. 힘내자 유스!

“필연(必然)은 우연(偶然)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역사학자 E. H. 카)

1학년은 대학교 홍보실에서 홍보대사로 군 복무는 해군의 홍보실(정훈공보실)에서, 지금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는 방송부에서 홍보활동을 했으니, 홍보와 인연의 끈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홍보실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대외 언론홍보다. 조직의 활동 및 상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 매체에 배포하며 보도에 대한 대응기능도 수행한다. 둘째, 홍보자료 제작이다. 조직을 알리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문서 및 시청각 자료를 만든다. 주로 사보, 소식지, 조직 소개 안내서나 제품 카탈로그를 직접 제작하거나 외주 기관에 맡겨 제작한다. 셋째, SNS 운영이다.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에 계정을 개설하고 조직의 소식과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올린다. 또한, 고객의 문의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식으로 활동한다.

▲ 공단 홍보실에서 기획한 소주 라벨과 주유소용 물티슈

군 복무 당시 홍보실 출근 시간은 아침 6시였다. 출근 후 첫 업무는 조간신문 스크랩부터, 방송보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스크랩 프로그램으로 스크랩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신문을 찾아 가위로 오렸다) 공단 홍보실의 준공무원도 8시면 출근하며 밤일은 잦다. 본인의 정시 퇴근으로 밤일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9시 근무 시작이며, 6시 퇴근이다)

필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2개월만 근무하며, 사무업무와 공단 SNS를 관리하고 있다. 근무환경은 일반회사와 같다. 실장부터 과장, 팀장, 계장까지 5명과 함께 근무하며 신입사원처럼 회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문서 작성부터 편집, 문서수발, 홍보 물품과 역사관 관리,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 공단 소식 개시가 주요업무다. 무엇보다 법률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종종 회식도 한다. (첫 회식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장어를 구워 먹은 건 잊지 못할 것이다)

근무 중 기대되는 시간은 홍보실장님의 시간당 40만 원짜리 강의다. (실장님 주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 독서 내용, 상식적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며, 짧게는 삼십 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신다. 이전에 근무한 GS칼텍스, 여성가족부, STX조선해양, 아람코아시아 코리아 이야기도 곁들어 주신다. 실장님의 강의 내용에 종종 머리를 한 대 맞는다. 평소에 잠잠한 결핍이 일어난다. 열심히 필기하다 보니 노트 절반이 실장님 강의내용이다. 필기한 내용 중 자기부정과 목표의식을 잊지 말라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돼 천만다행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법률구조
· 법률상담: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출장 상담
· 소송대리: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가정 · 소년 ·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 ·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 사건
· 기타 법률 사무지원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법문화 교육, 출장강연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공단에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법의 국선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공단에서 직접 민사·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대상자다.

청년 미취업자나 대학생은 무료대상자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전국에 설치된 131개 사무소를 방문(홈페이지 예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2번)과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년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체납 임금사건으로 공단의 도움을 받은 29세 이하 청년근로자 수만 1만2천850명으로, 구제된 체납임금액은 963억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체납임금 규모는 1천400억 원으로 전체 체납임금 규모인 1조 4천3백억 원의 9.8%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로 청년근로자의 체납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은 수능 시험 후 대학교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키즈카페에서 약 1개월간 근무를 했으나, 임금 85만 원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와 함께 임금청구를 위해 가게를 찾아가니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쫓아내기도 했다. 결국, 노동청 진정 후 공단의 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전액을 받았다.

한 사회 초년생은 첫 직장으로 공연기획사에 취직해 공연 현장관리 및 디자인 업무를 했으나, 월급 25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임금 체납액이 쌓이면,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 '내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후 재산조회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 집행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 근로자들이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들이 겪고 있는 근로 관련 애로사항 중 체납임금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해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사이트인 알바천국과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사이트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를 개설, 12월까지 234건을 처리했다. 이 밖에 200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총 69만여 건, 140만여 명의 체납 근로자의 체납임금 총 8조 9천여억 원을 해결했다. 에코 독자들도 어려움이 있다면, 공단에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무료법률 전화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32번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힘없는 사람들이 법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의 가치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공통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 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하느님께 청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어느 순간 경험을 하고 있다. 우연으로 보여 놓칠 뿐,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무더운 여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집에서 마음껏 휴식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을 갔나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는 항상 음악이 함께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아플 때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음악이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당신의 더위를 식혀줄 노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당신의 더위를 식혀줄 노래

파도 - UN (2001)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이 곡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을 곡이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발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UN 만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여름 노래이기 때문이다.
노래 가사를 보면 '하얀 모래' '파도' 등 바닷가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사가 많다.

Too Much - 크라운제이 (feat. 서인영) (2008)

'I love you 너 하나만 I need you 널 바라보는 눈빛과 내 말투도 조금씩 그댈 닮아가네요'
여름에 신나는 노래도 좋지만 조금은 잔잔한 노래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무더위에 잠못 이루는 당신에게 아주 좋은 노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듣던 신나는 여름노래보다는 조금 잔잔해서 무더운 밤에 듣기 좋은 노래이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마구마구 생각날 수 있게 하는 노래이다.

랄랄라 - 마이티마우스 (2011)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꺼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 된 거야'
여름 하면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마이티마우스의 노래를 듣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유의 마이티마우스의 신나는 랩과 톡톡(Tok Tok) 이라는 노래에서도 함께한 소야의 담백한 보컬로 함께해 당신의 무더위를 조금은 잊게 해 줄 것이다.

한 여름밤의 꿀 - 산이 레이나 (2014)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 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무더위에 혼자 집에 누워 있으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가? 이곡은 두 남녀의 설렘과 풋풋함을 담은 달달한 사랑노래이다.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따뜻한 음악으로 두 남녀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깨고 싶지 않은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해서 마치 한 여름밤의 꿀과 같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목요일 밤 - 어반자카파 (2016)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 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이 노래는 여행을 갈때보단 무더위를 피해 집에 있을 때 듣기 좋은 노래이다. 목요일 밤'은 통통 튀는 건반음으로 시작되는 도입부로부터 어반자카파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멜로디에 어반자카파의 유난히도 청량한 보컬과 함께 빈지노의 '목요일 밤'에 대한 감성적인 랩이 조화를 이루며,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지친 일과를 방금 끝낸 누구라도 바로 실행 가능한 소박한 일상 탈출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

추억의 음원 스트리밍, LP판과 카세트테이프

당신은 지금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가?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아니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조금은 오래된 노래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조금은 오래된 어쩌면 누군가의 추억이 되었을 노래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친근한 노래, 명곡들을 들려주려고 한다.
당시 19070년대는 국내 가요계의 주류는 철저히 1960년대부터 이어온 트로트였다.
그래서 당시 주류였던 트로트를 상징하는 남진, 나훈아, 하춘화 등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님과 함께 – 남진 (1972)

남진의 여러 노래 중 가장 유명한 노래이다.
지금 들어도 신이 나는 노래이며 '
저 푸른 초원위에' 라는 가사가 나오는 순간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신나기에 아주 좋은 노래이다.

해뜰날 – 송대관 (1975)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사다.
밝고 명랑한 멜로디와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날이라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노래제목처럼 가장 밝게 해뜰날이
올 것이라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가사가 함께한다.
듣고만 있어도 힘이 나는 노래이다..

1990년대는 개인주의가 태동한 시대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개인적이고 탈정치적이며 소비 지향적인 성향을 지녔다.
끊임없이 '나'를 강조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노래한다.
그리고 노래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가 되며 자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친다.

1980년대는 다양한 장르가 공존했던 시대다.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등장했고,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등을 통해 다양한 록 음악이 인기를 끌었다.
주현미로 대표되는 트로트 또한 꾸준히 인기를 얻었으며
모든 음악 장르는 평정한 조용필이라는 대스타를 낳기도 했다.
1980년대는 서서히 10대 청소년들이 문화시장에 등장한 시기로
김완선, 소방차, 박남정 등 하이틴 가수들이 인기를 끌었다.

행복을 주는 사람 – 해바라기 (1983)

당신이 이 노래를 듣는 다면 마음이 따뜻해 질것이다. '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 하나하나 따뜻하고 가슴 먹먹해 지는 노래이다.
2013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석규, 이제훈이 주연으로 나온 '
파파로티' 에서 이 노래가 나와 많은 화제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이다.

여행을 떠나요 – 조용필 (1985)

노래만 들어도 가방을 둘러매고 어디는 놀러가고 싶은 노래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는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록음악 이었다.
2008년 이승기가 다시 리메이크를 하면서 다시 이 노래가 빛이 났다.
어디든지 여행을 떠난다면 차안에서 가장 듣기 좋은 노래이다.

칵테일 사랑 – 마로니에 (1994)

당시 얼굴 없는 가수였던 마로니에는
'칵테일 사랑' 이라는 노래로 대중 앞에 섰다.
톡톡 튀고 개성 있는 멜로디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다.
무더운 여름에도 듣기 좋은 만큼 청량한 노래이다.

젝스키스 – 커플 (1998)

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돌 젝스키스의 명곡 중 하나 커플은
90년대 말 겨울에 길거리 어디서든지
울려 퍼지던 노래였다고 한다.
특유의 달콤한 멜로디로 시작하는 노래이며
현재까지 젝스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다.

어머님께 – 지오디 (1999)

지오디의 데뷔곡이며 대중들에게 '어머님께' 는
지오디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일것이다.
가슴 먹먹해지는 여려 가사 중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이다.
자금 들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노래이다

Hosting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 입사 한 달 차, 14학번 한유정 학우 인터뷰

매일 학교를 구미에서 오가야 했던 나에게 유정이는 알게 모르게 큰 위로가 되던 친구였다. 이유인 즉슨 첫 번째로 '시외통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잘하는 유정이와 '듣기'를 선호하던 나 사이에는 은근한 조화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업 전후로 틈날 때마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던 기억이 추억이 된 지금, 아마 돌이켜보면 통학을 시작하고 학교생활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동기는 유정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이야기에는 결국 끝이 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전 동기들 중 가장 빨리 사회로 나아가는 데 성공한 유정이를 보며, 물론 대학교의 결말이 취업은 아니지만, 나는 참 잘됐다 싶었다. 꿈을 위해 해왔던 일들을 옆에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고, 얼마나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기에.

.

그렇다면 이제 동기가 아닌, 사회인으로써 14학번 한유정 학우를 인터뷰해보고자 한다. '사회인'이라 하니 함께 수업과 과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 꽤 멀어 보인다는 것이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겐 자극제가, 누군가에겐 팁이 되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스킵하지 않고 귀기울여주길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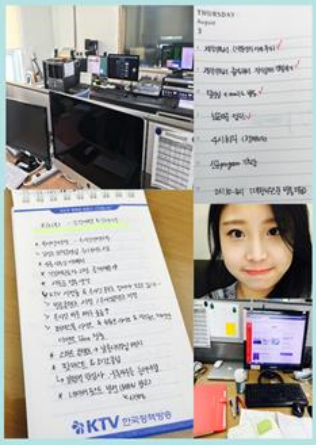
-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학번 한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4학년이고 운 좋게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어 현재 한국정책방송원, KTV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국에서 라디오팀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라는 곳에서 라디오팀 막내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작가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우선 저희 방송국 KTV의 각종 SNS 채널들을 관리하고 있고 청취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아 사연을 취합하고 각색하는 일을 해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새로운 방송 소재를 찾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일들도 하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3. 이것저것 적응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회사 내에서 막내로서 겪는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제가 근무하는 라디오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무인원도 많지 않고 다들 젊으셔서 다들 트렌디하고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막내로서 겪는 고충이 거의 없어요. 다만 하나 있다면 저희 팀 상위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전화를 제가 받아야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답니다. 팀장님, 부장님 전화는



언제 받아도 긴장되고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사 1달차 막내니까요…

4. 학교를 다닐 때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3학년 2학기부터 작가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 꿈은 기자였는데, 기자 준비를 하다가 현실적인 벽이 너무 커서 구성작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외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경상북도 SNS 기자단, 한수원 블로그 기자단, 새마을금고 블로그 기자단까지… 3학년에서 4학년 1학기,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10개정도의 대외활동을 했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회사에 면접을 볼 때 정말 큰 플러스요인이 되더라고요. SNS 운영관리능력을 비롯해서 사회성도 인정받았으니까요. 또 작년 겨울방학 때는 KBS 아카데미 구성작가 주말반 과정에 등록해서 3개월동안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구성작가 과정을 수료했어요. 물론 서울까지 오가는 일이 정말

5. 혹시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했던 것 중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 평소 글을 쓰는 과제를 참 좋아했는데요. 특히 지난 학기 영상문화론 강의에서 영화를 보고 각 장면을 분석하고 생각을 쓰는 과제는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좋아하는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제출 매수를 훨씬 넘겨서 냈었는데… 열심히 재미있게 했던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은 기억이 있네요.

6.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했는데, 빠르게 사회생활에 뛰어든 것의 장/단점이 있다면?

- 우선 장점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직 신입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직접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뻤고, 첫 급여를 받았을 때는 적은 액수이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독립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은 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실 2학기까지 학교를 다녔었다면, 방학을 활용해서 여행도 가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방학 대신 짧은 휴가만 있고, 또 매일 출근해서 야근하고 하다 보니 저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7. 최근 가장 열정을 쏟는 일이나 관심사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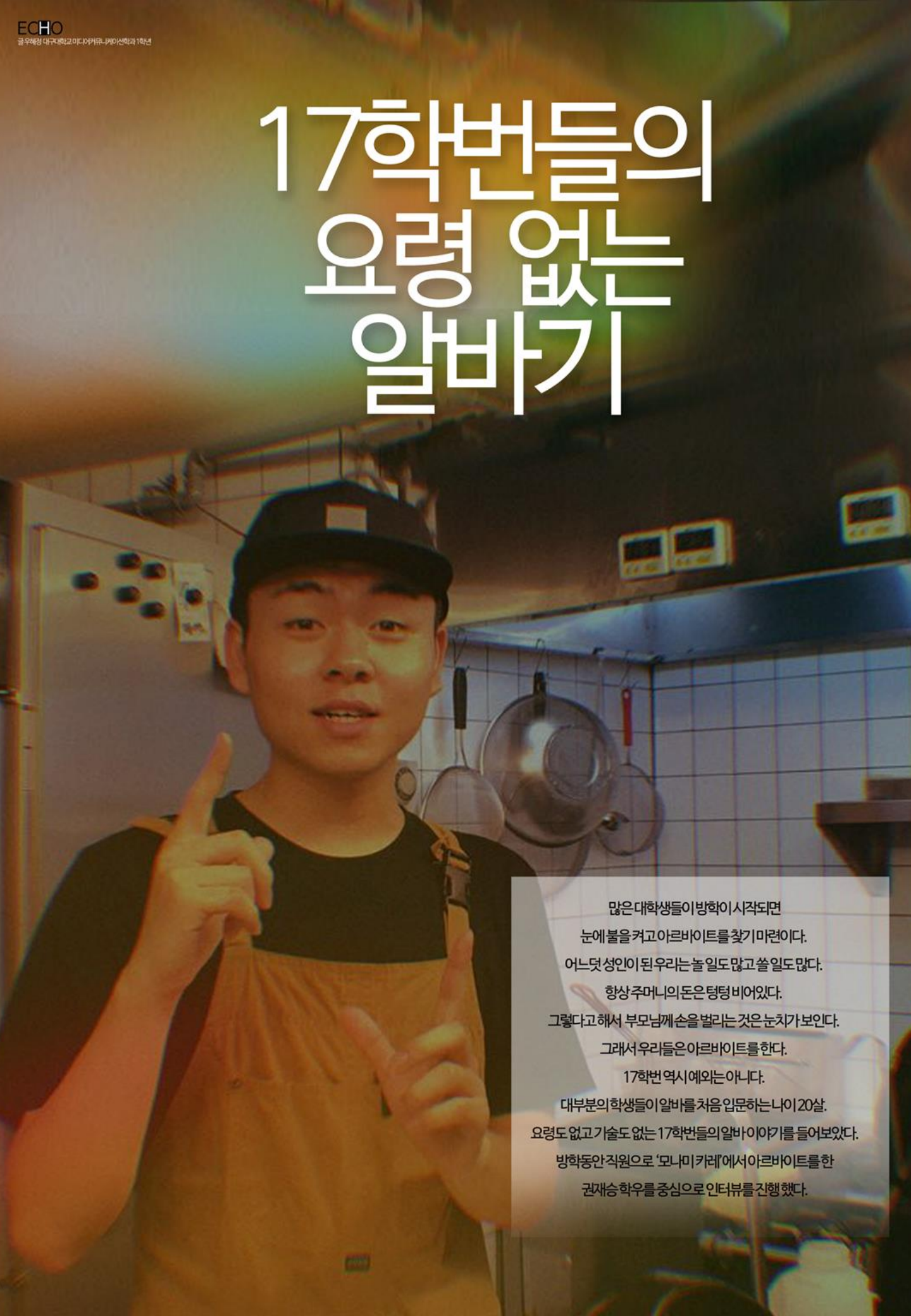
-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좋아서라면 요즘은 절실한 필요에 의한 독서를 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글을 쓸 일이 많고, 그에 따른 필력이 요구되는데 그럴 때 책만큼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나 표현들을 익혀요.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취업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반드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 보다는, 목표하는 일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을 남겨놓을 테니 만약 작가를 희망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도 좋아요. 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dbwjd2429@naver.com

17학번들의 요령 없는 알바기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면
눈에 불을 켜고 아르바이트를 찾기 마련이다.
어느덧 성인이 된 우리는 놀 일도 많고 쓸 일도 많다.
항상 주머니의 돈은 텅텅 비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은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17학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바를 처음 입문하는 나이 20살.
요령도 없고 기술도 없는 17학번들의 알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방학동안 직원으로 '모나미 카레'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권재승 학우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 했다.

글 권재승, 우혜정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Q1. 안녕하세요.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셨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모나미 카레'라는 카레 집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Q2. '모나미 카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신의 땀을 흘리게 한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힘든 노동 혹은 과짜 손님, 과짜 사장) 가 있을까요?

저는 손님이나 사장님 때문에 힘들기 보다는 제 자신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방학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알바를 했는데, 학교에서 삼덕동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출근 시간이 9:40분까지였는데 늦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어요. 매일 1교시 수업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하 제가 평소에 성격이 급해서 많은 일들이 주어지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이 많이 오셔서 바쁜 피크시간에 마음이 급해져서 일도 급하게 했어요. 그러다보니 맥주병이나 컵 같은 유리를 많이 깨기도 하고, 서빙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수저를 떨어트리거나 플레이팅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께 매우 죄송했어요. 하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힘든 것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일에 익숙해 져서 실수를 해도 당황 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Q3. 땀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혹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등) 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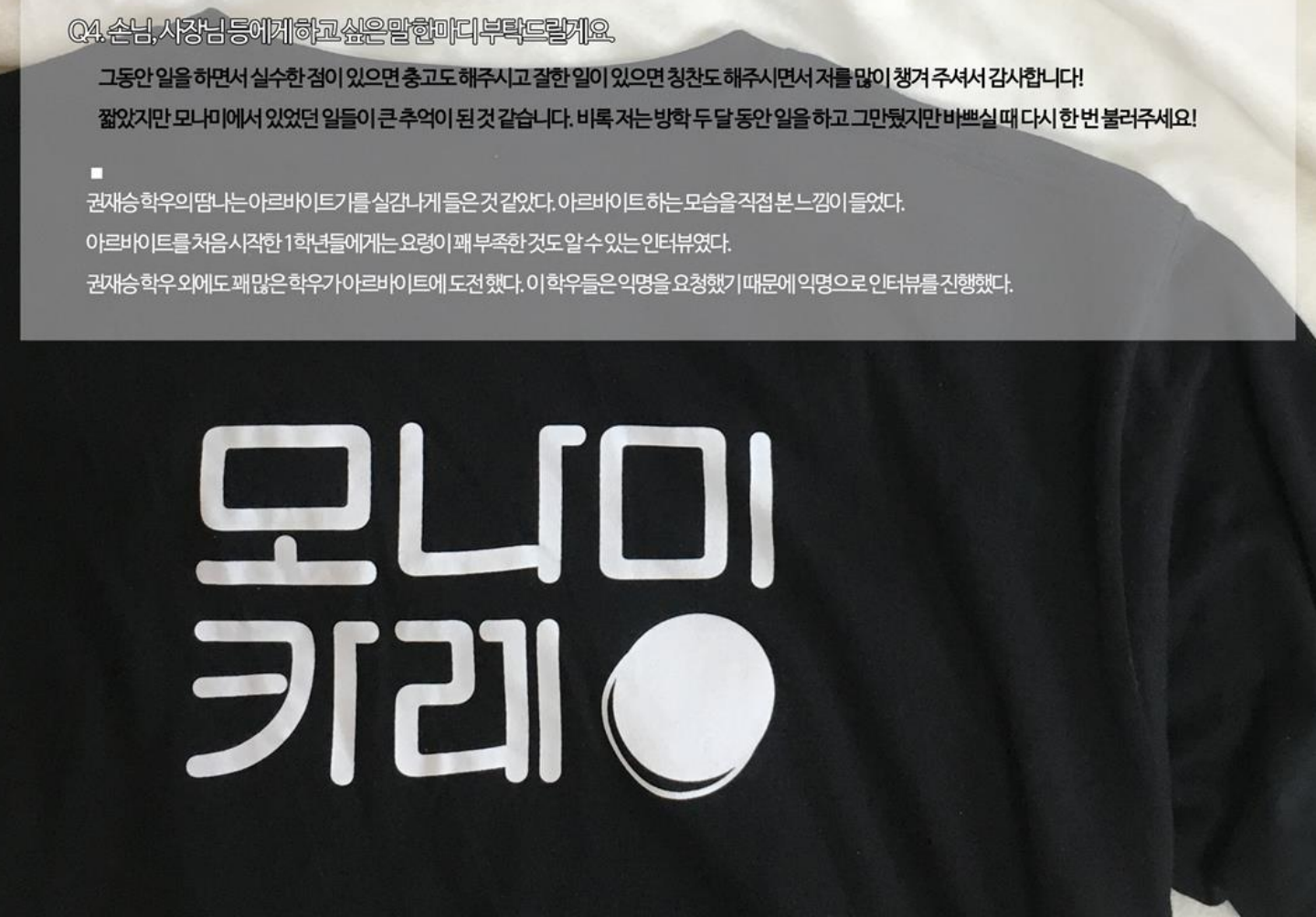
솔직하게 말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가장 큰 이유예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제가 살면서 놓치고 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하는 방법 같은 거요. 또한 짧지만 잠시동안 직원으로 일해서 인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더욱 더 성숙해진 기분이라고 할까요. 하하하 제 입으로 말하니까 민망하네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장님과 형님들은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 사회생활 외에도 많은 경험을 이야기로 들었어요. 덕분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Q4.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일을 하면서 실수한 점이 있으면 충고도 해주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면서 저를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모나미에서 있었던 일들이 큰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방학 두 달 동안 일을 하고 그만뒀지만 바쁘실 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

권재승 학우의 땀나는 아르바이트기를 실감나게 들은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직접 본 느낌이 들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1학년들에게는 요령이 꽤 부족한 것도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 권재승 학우 외에도 꽤 많은 학우가 아르바이트에 도전 했다. 이 학우들은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A군

Q1. 안녕하세요. 어디서 아르바이트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빵집에서 마감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Q2.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신의 땀을 흘리게 한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힘든 노동 혹은 괴짜손님, 괴짜사장)가 있을까요?

동네 빵집이라 괴짜 손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반말을 하시는
손님은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것 보다 땀이 났던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당일 케이크 발주는 매니저님이 적어 놓으신 것만 발주하면 됐는데요.
요일을 착각해서 토요일에 발주해야할 케이크들을 발주했어요.
다음날 매니저님이 화가 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해냈다고 느끼고
뿌듯하게 집에 갔어요. 아침에는 완전 멘붕이 왔죠.
목, 토 아르바이트였는데요. 토요일 날 너무 무서워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까 고민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Q3. 땀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혹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등)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월급 때문인데요. 매달 용돈 이외에 들어오는 돈으로
제가 사고 싶던 물건도 사고 저금을 하면 늘어나는 액수가 매우 뿌듯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와 규모가 작아서 좀 깐깐한 것 빼고는
생각보다 꿀 아르바이트였어요. 가끔 매니저님이 남은 컵케이크를
챙겨주셨는데 그런 점도 좋았고, 손님들이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갈 때도 매우 뿌듯했고요. 그래도 가장 1순위는 월급이었던 것 같아요.

Q4.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챙겨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월급을 너무
늦게 주세요. 좀 더 일찍 받고 싶은 알바생의 마음 좀 알아주세요.

-B양

Q1. 안녕하세요. 어디서 아르바이트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Q2. 피자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신의 땀을 흘리게 한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힘든 노동 혹은 괴짜손님, 괴짜사장)가 있을까요?

한날 엄마들 모임이 있는지 애기들을 데리고 저희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딱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애기들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애기 들만의 힘을 내뿜으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애기가 샐러드 바의 코코 볼이 맛있었는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며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까진 나쁘지 않았는데
그 아기가 코코 볼이 담긴 통을 통째로 쏟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치워야하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이는 저에게 자꾸만 코코 볼을 요구했어요.
그때 코코 볼을 치우느라 고생한다고 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Q3. 땀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혹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등)는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용돈을 주신 부모님께 방학인 만큼은
제 스스로가 용돈을 벌어 써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들어온 용돈으로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함이기도 해요.

Q4.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샐러드 바를 이용할 때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담아가셔서 남기는 음식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C양

Q1. 안녕하세요. 어디서 아르바이트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알바를 할 때 음료 레시피를 외우느라 꽤나 고생했어요.

Q2.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신의 땀을 흘리게 한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힘든 노동 혹은 괴짜손님, 괴짜사장)가 있을까요?

저희 매장은 방학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손님분이 26잔을 시키셨어요. 알바한지 얼만 안 된 저에게
거의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빨리는 만들어야하는데 만들어도,
만들어도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서 끝이라면 좋았겠지만 계산을 할 때 원래 5만 원 이상은
전사서명을 해야해요. 그때 가격이 총 6만 원쯤 이였는데 전자서명을
안 받아서 뒤로 가기를 눌렀거든요. 그때는 손님이 떠나간 후였고
그 돈은 제가 메꿨어요. 거의 하루 월급 치를 그 손님께 기부했어요.
땀이 흐르기보단 눈물이 흐르는 에피소드예요.

Q3. 땀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혹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등)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월급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가끔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께 돈을 더 받아쓰곤 했는데 그때도 눈치가 엄청 보였어요.
심지어 지금 방학인데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온전히 저의 힘으로
번 돈이라 쓸 때도 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Q4.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땀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아르바이트!
하지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나가기를 응원한다.

Outreaching

'청춘은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뜨거운 태양과 닮아서 일까.
꼭 뜨거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까.'

이 글을 읽는 청춘들에게 꼭 뜨겁지 않아도 돼. 미적지근해도 좋아.
그런 삶을 살아가도 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청춘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둬도 좋을텐데.
그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문장들이 조금의 위로라도 되었으면 한다.

여름안의/우리

사키야마 가즈히코의 〈아무것도 없는 풍족한 섬〉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저자는 이것이 바로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바쁜 일상을 견디고 사는 우리네 청춘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풍족한 섬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저자의 청춘 시절 품었던 의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춘들이 고민하고 있는 뜨거운 질문에 '세상을 바꾼 한 권의 책'으로 답한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들고 방황할 때가 있다. 저자의 청춘을 함께 했던 14권의 책들을 다시 집어 들어 그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위험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그려낸 책. 청춘의 독서

박솔뫼 작가의 장편소설 〈머리부터 천천히〉

머리부터 천천히는 청춘의 단면을 날것으로 드러낸 소설로, 발을 딛고 서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수면 위에서 조금씩 떠밀려 가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 되묻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 삶을 비춰보게 하는 소설. 머리부터 천천히

김상현의 기록들 〈그러니 바람아 불기만 하지 말고 이루어져라〉

지친 당신에게 작가 김상현은 무한한 믿음의 글을 전한다.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 응원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라고 마음 깊이 믿게 한다.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해낼 수 있을지 막막하고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다고 느낄 때.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당신 참 예쁘고 소중하다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책. 그러니 바람아 불기만 하지 말고 이루어져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네 삶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들에게 이 시를 전한다.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
우연을 위하여 - 원태연

여름 밤 덥다고 이불없이 자지 마
신호바뀔 때는 꼭 죄우를 살피고
늦잠 자고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조심해 아파서 병원가야 하면
우린 집이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우연이 적어지잖니
내가 슬퍼할거란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여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괜찮아 안 울어

속상한다고 술 많이 마시면
밥 거르게 되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아프는 거니까

내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우연도 아파할 테니까

대프리카의 더위 피하지 말고 즐겨라!

더위로는 지지 않는 대구의 땀을 식혀줄 힙 플레이스 5선

대구의 여름을 사람들은 '대프리카'라고 부른다.

이렇게 더운 대구의 여름을 당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혹시 덥다고 집에만 박혀있는 생활을 한다면 당장 외출 준비를 하자.

무료한 당신들의 일상을 우리 ECHO가 잠시나마 즐겁게 바꿔주려고 한다.

서울, 대전, 부산 등 굳이 멀리가지 않고 딱 대구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말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얼른 외출준비를 하길 권한다.

그럼 이제 무더운 대구의 여름을 우리 ECHO의 안내를 따라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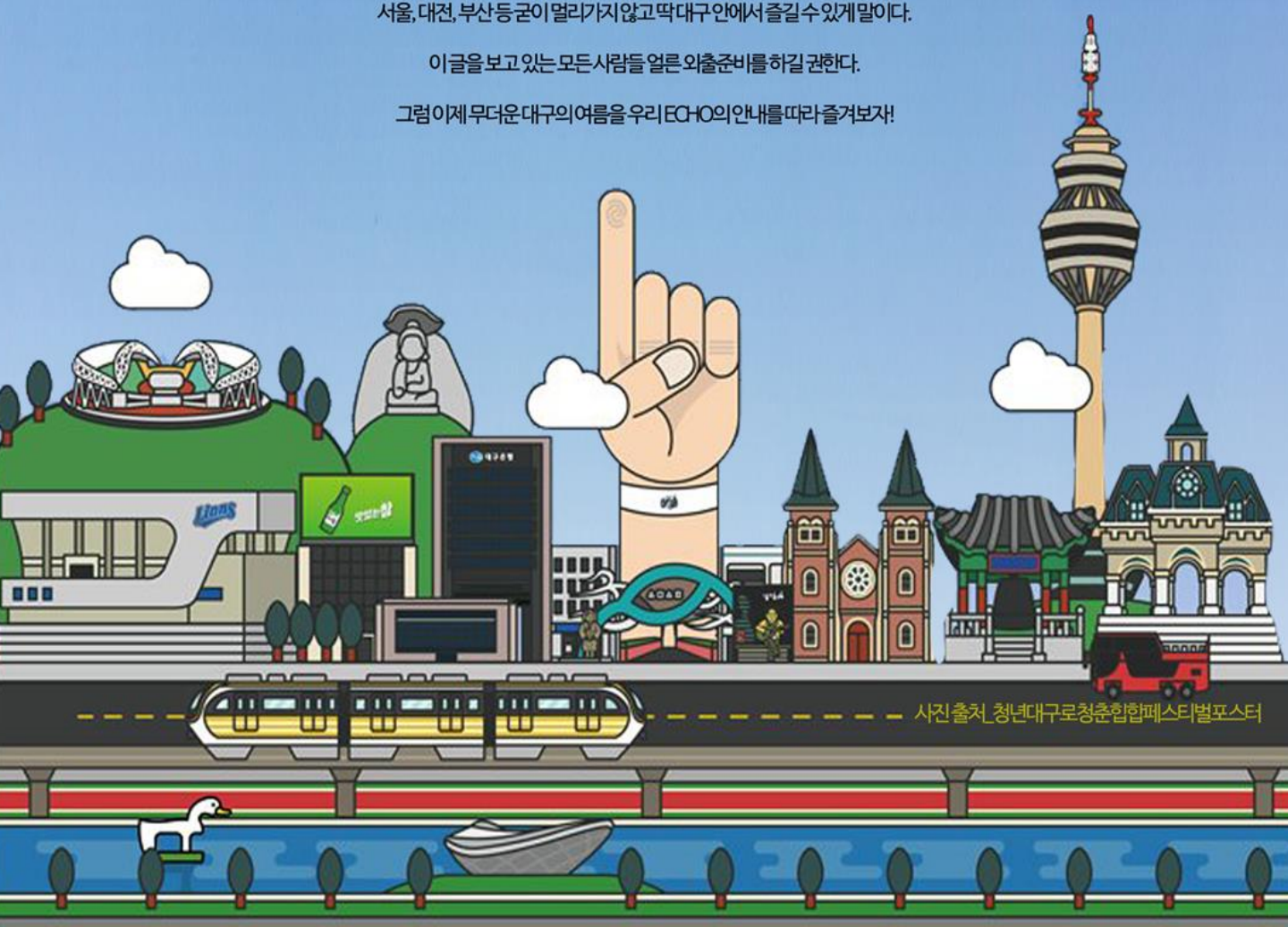


사진 출처_청년대구로청춘힙합페스티벌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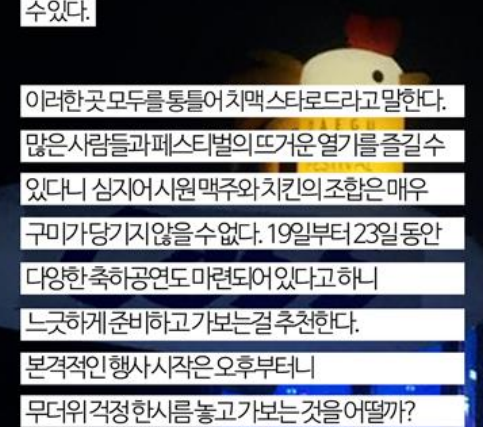
ECHO
글 우혜정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3선

#1 대구 치맥 페스티벌 2017 (17.07.19 ~ 17.07.23)

2013년부터 2017년 꾸준히 열린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치맥 페스티벌은 두류 공원, 평화시장(닭똥집 골목), 서부시장 프랜차이거리 이월드에서 열린다.

치맥페스티벌의 주된 메인 행사는 치맥 프리미엄 존에서 열린다. 치킨 외에 다양한 주전부리를 맛보고 싶다면 치맥 라이브 펍, 글로벌 음식과 생맥주로 목을 축이고 싶다면 치맥 글로벌, 눈과 귀를 즐기고 싶다면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야외 음악당에 위치한 치맥 피크닉 힐, 낮에는 무지 덥지만 어둑어둑 해질 무렵 가족 혹은 연인, 친구와 돗자리 피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곳 모두를 통틀어 치맥 스타로드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과 페스티벌의 뜨거운 열기를 즐길 수 있다니 심지어 시원 맥주와 치킨의 조합은 매우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19일부터 23일 동안 다양한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느긋하게 준비하고 가보는걸 추천한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은 오후부터니 무더위 걱정 한시름 놓고 가보는 것을 어떨까?

#2. 이월드 호러어드벤처 좀비타운 2017 (17.07.15 ~ 17.08.27)

낮에는 그저 평범한 놀이동산이지만 밤만 되면 좀비가 출몰한다. 말로만 들어도 오싹한 것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든다. 18시, 해가 뉘엿뉘엿 질 쯤부터 이월드와 83타워 전역이 좀비타운으로 변해 좀비들 습격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있는데, 상상 이상의 퀄리티 있는 분장이여서 좀더 생동감 있어 보인다. 좀비 분장 소에 가면 직접 좀비 분장을 받을 수도 있다. 주변 분위기 역시 호러로 꾸며 철창 혹은 피가 범벅된 자동차 등 공포감을 주는 분위기를 형성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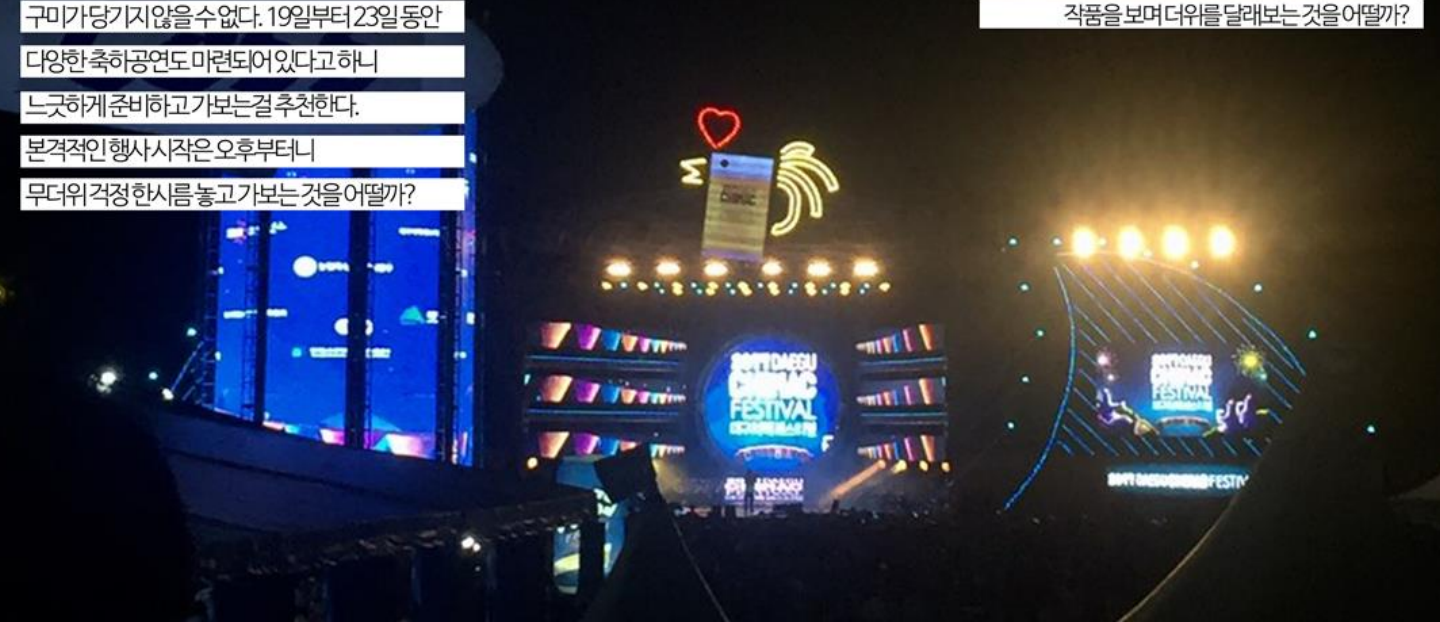
슬슬 허기가 진다면 오싹한 호러 메뉴들이 있는 좀비 레스토랑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SNS를 뜨겁게 달군 호러 퍼레이드, 호러 광대 서커스, 호러 광대 비보잉, 좀비 플래쉬몹 까지 눈과 귀가 즐거워질 이색 이벤트들이 준비되어있다.

여름을 오싹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월드로 달려가자!

#3. 2017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 2017 (17.07.15 ~ 17.08.31)

2017년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는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강정의 미래의 기록'이며, 안미희 예술 감독의 지휘하에 국내외 총 23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건축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실현,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을 보여주는 국내외 작가들, 대형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작품, AR(증강 현실) 기술을 접목한 작품, 관객 참여 프로젝트가 이번 미술제의 관점 포인트이다. 이를 염두하고 예술 작품을 즐긴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즐길 수 있다.

미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도 빠질 수 없는데 개막식에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즐기는 재즈 공연이 있다. 예술 작품으로 눈을 즐겁게 했다면 재즈 공연으로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재즈 공연 이외에도 많은 공연들이 있으니 개막식에 꼭 참여하자! 이 무더운 여름 예술 작품을 보며 더위를 달래보는 것을 어떨까?



글 우혜정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야외활동을 마쳤다면
휴식을 취할 겸 시원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갈증이 나는 계절이다.
이러한 갈증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한다면,
이번 여름은 당신이 가장 알찰게 보내는 것이다.

#1. 사람들은 즐겁다 (대구 중구 동성로4길 40-13)

동성로에 가면 항상 화려한 불빛과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조용한 술집을 찾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즐겁다'는 예외다.
은은한 조명과 엔틱한 인테리어는 여심을 사로잡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상의 장소다.
자리에 앉아 시원한 맥주와 안주를 먹으며 소중한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 보자.
참고로 삼덕동에 새로 오픈한 사람들이 즐겁다 2호점도 있으니
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찾아가보자

글 우혜정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2. 리플레이 (대구 수성구 수성못2길 37-1)

무더운 여름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수성못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시원한 바람과 사람들의 인파를 느낄 수 있다.
수성못을 어느 정도 둘러봤다면,
분위기 좋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를 즐길 차례다.
수성못 근처에는 수많은 가게가 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리플레이'는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잘 배치된 가구들과 벽장을 한가득 매운 LP판은
감성을 자극하기에 딱이다.
맥주를 시킨 후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외국 어느 펍에 온 느낌이 물씬 든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 자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는 우리의 기분을 한껏 들뜨게 한다.

힘 빠지는 무더운 여름 우리 ECHO의 추천을 한번 믿어 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여름을 이겨 내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여름 그 맛

때아닌 무더위의 강렬한 공격에 맥없이 쓰러진 당신을 일으켜 세울 그 맛!
더위에 가무는 땅처럼 나날이 가물어가는 당신의 입맛을 촉촉하게 돌려줄 그 맛!
제철 따라 계절 따라 찾아먹는 삶,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1. 복숭아,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최근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과즙, 과즙하면 역시 복숭아죠.
인간 복숭아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지난날들,
그 피로는 복숭아 한입 깨물면 사라질 거예요.
아, 혹시 물복과 딱복 중 무엇을 좋아하나요?
한입 깨물면 과즙이 입안 가득 넘치는 물렁물렁 몰캉한 물복!
아삭아삭 식감의 재미와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딱복!
취향대로 식감을 선택하면 어디든 복숭아의 달콤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2. 옥수수가 옥수수수수

한 여름 그늘 아래에서 열심히 옥수수를 먹다
하모니카 만들어 불었던 기억 다들 있죠?
뙤약볕에 자란 커다란 찰옥수수를 푹 찌어 호호 불어가며 먹다 보면
입으로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코로는 옥수수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더위에 지친 당신에게 웃음을 가져다줄 거예요.
더운데 뜨거운 걸 먹기 싫으면
옥수수 아이스크림 한입 가득 물어보세요.
언제나 옥수수 알갱이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니까요.

3.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여름에 제집보다 더 드나드는 곳이 카페 아니겠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여럿이 숟가락 들고 퍼먹는 빙수만큼 별미도 없죠!
빙수계의 조상 팥빙수와 더불어 우유 얼음 위 다양한 과일 토핑들이 얹어진 과일빙수는
최고의 여름 간식이잖아요. 더운 날씨에 뜨거워진 내 몸 중 잇몸이라도
시원해져야 여름을 이겨나갈 힘이 생겨나는 요즘, 이만한 음식이 없죠.
빙수 전문점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빙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 빙수를 반겨주는 건 어때요?

4. 넌 나에게 치킨 값을 줬어

치킨은 언제 먹어도 보양인 거 다들 아시죠?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여름에 치킨은 더욱 특별한 존재에요. 복날이라는 명분을 주니까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킨을 원기 회복을 명분 삼아 한 마리라도 더 먹으면
더 이상 여름이 미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부 속 저장된 원Pick 치킨 번호를 누를 차례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전국 사무소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복지 중추기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변호합니다!

홍보대사
배우 김고은

법률상담
- 면접상담
- 132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

법률구조
- 합의중재
- 서류 무료작성
- 소송대리
- 무료변호

법률정보
- 법률서식
- 상담사례
- 개인회생 · 파산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등
- 소송비용 자동 계산

준법계몽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법교육
- 준법강연
- 법률구조제도 조사 · 연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며, 건전한 준법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09시~18시까지
- 방문상담 : 전국 공단사무소, 10시~17시까지
  (평일 기준)

전국의 법률구조공단
130개소

대도시와 시 · 군까지
총 130개 사무소 운영

전국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7**개와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서울, 부산 등 7개 도시에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감천에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전국의
법률구조 전문가 **980**명
290여 명의 변호사와
700여 명의 직원 등
약 980명의 법률전문가 보유

상담은 무료, 소송은 국내 최저비용으로

- 대한민국 국민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전국 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무료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소송 대리
- 형사변호사건은 125% 이하 소득이라면 누구나 무료
- 소송지원 대상자 및 범위는 출연기금의 증감 등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법률구조 비용지원 범위에 따른 대상자 분류 (2016년)

전부 무료	변호사보수 무료 (소송비용 자부담)	유료 (변호사보수 + 소송비용)
• 생활보장수급자 • 농어업인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보호아동 • 의사자유족 ⋮	• 범죄피해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소액임차인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 (1인가구 203만원 3인가구 447만원)

200만 건의 사건처리 노하우, 공단이 변호하면 다릅니다

- 공단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약 8천만 건의 법률상담과 200만 건의 민 · 형사 사건 처리
- 2014년 기준 서울지역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 1.9건, 공단은 1인당 10배가 넘는 21.3건 처리

공단의 상담 소송대리 건수 (2015년)

상담 **150**만 건

민 · 가사 소송대리 **15**만 건

형사국선변호사건 (2015년)

13.9% 전체 125,356건 중 17,373건

개인파산신청사건 (2015년)

17.2% 전체 53,865건 중 9,247건

공단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 2015년 기준 공단의 평균 소송비용은 14만원
- 소송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감정필요성, 당사자 수 등 사안에 따라 다름

22만 9천원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달 200만원 소득인 '소시민' 씨는 친구 '나돈줘'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시민 씨는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으로 유료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변호사 보수 13만원과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 9만 9천원을 부담하고, 소송을 마쳤습니다.